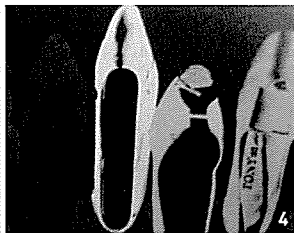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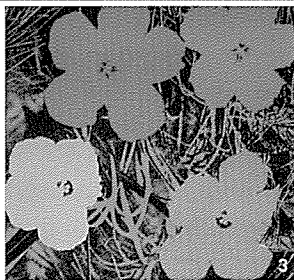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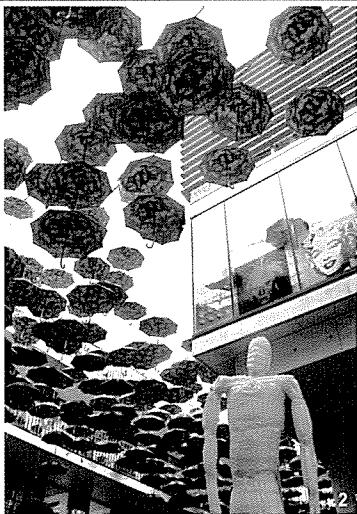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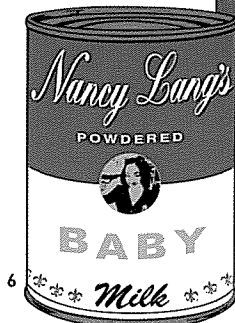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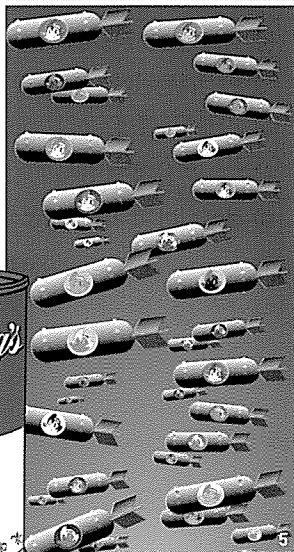


# 쌘지길의 <Wake Up Andy Warhol>전 앤디 워홀의 선물

피카소 이후 대중에게 가장 사랑 받아온 현대 미술가 앤디 워홀(Andy Warhol). 액자를 에워싼 업속주의를 조롱하며 경쾌한 팝 아트를 선사했던 그가 돌아왔다. 인사동 쌘지길에서 2007년 1월 25일까지 펼쳐지는 <Wake Up Andy Warhol>전은 1987년 세상을 떠난 워홀과 21세기의 새로운 워홀을 위한 무지갯빛 헌사다. 에디터 정명호 사진 고희진 전시 문의 갤러리 쌘지(02-736-0088)



1 앤디 워홀의 오리지널 프린트들이 전시된 갤러리 쌘지의 내부. 2 멀티 아트 습 쌘지길 곳곳에 워홀에 대한 젊은 작가들의 오마주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다. 3 워홀의 대표작 <Flower>. 4 갤러리 쌘지가 소장한 1980년 작 <Shoes>. 5 초대 작가 이동기의 팝 아트. 6 낸시랭의 패러디 작품.



앤디 워홀의 미덕은 예술을 마주 보는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켰다는 데 있다. 색채의 향연이 마티스와 피카소를 따라잡을 만큼은 아니었으며, 미적인 깊이에 있어서 마크 로스코를 앞지를 지경은 아니지 않았다. 하지만 워홀은 이전까지 근엄한 자세로 동경의 대상이었던 미술 세계를 아주 친근하고, 때론 경박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1950년대 이야기했다. 백남준이 텔레비전을 예술로 승화시켰던 것처럼 워홀은 흔해빠진 광고 비주얼과 대중문화의 이미지들을 미술 교과서에 실리게 만든 것이다. 잡지 <보그>와 <뉴욕>의 일러스트를 그리고 상점의 원도 디스플레이를 맡기도 했던 1928년생 청년 앤드루 워홀라(Andrew Warhola)가 1952년 이름을 '워홀'로 다듬어낸 뒤 뉴욕의 휴고 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펼치면서 예술은 보다 다채로워진 셈이다.

사실 1987년 워홀이 세상을 떠나고, 199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그의 회고전이 열렸을 때 호암 갤러리 안에서 나는 길을 잃은 듯했다. 코카콜라와 마릴린 먼로의 거대 이미지들이 견고한 벽면을 채우고 있다니! 하지만 함부로 복사된 것 같은 비주얼은 묘하게 마음을 끌었고, '현대 미술'이라는 무한대의 장르를 파헤치고 싶게 만들었다. 영화를 찍고, 글을 쓰거나 대화를 나누며, 실크스크린 복사를 반복하고, 죽음을 찬미하는 모든 일이 예술일 수 있다는 생각이 알코올처럼 깊숙이 몸을 파고들었다. 워홀은 주지 스님의 선문답보다 명쾌하게 '삶 자체가 예술'이라는 명제를 일깨웠다.

2006년 앤디 워홀이 돌아왔다. 그런데 워홀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그의 작품)로부터 영감을 얻은 21세기의 새로운 워홀과 함께 워홀이 세상을 떠난 지 20주기가 되는 2007년 1월 25일까지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쌘지를 비롯한 멀티아트 습 '쌘지길'의 곳곳에서 전시되는 <Wake Up Andy Warhol>전은 워홀의 대표작 20여 점과 그의 작품을 재해석한 우리나라 젊은 작가 60여 명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쌘지길을 찾은 이는 우선 지하1층에 위치한 갤러리 쌘지를 방문해야 한다. 앤디 워홀의 대표작인 1967년 작 <Marilyn Monroe>와 1964년 작 <Flower>의 오리지널 프린트가 교차해 배치된 제1전시실은 그 자체로 워홀의 팝 아트 이미지를 잘 드러낸다. 이번 전시를 통해 갤러리 쌘지에서 역대의 가격을 마다 않고 구입했다는 1980년 작 <Shoes>의 반짝이는 배경은 직접 보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 제2전시실에는 이동기, 낸시랭, 신창용, 변순철 등 우리나라 젊은 아티스트의 '앤디 워홀에 대한 오마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니 그 패러디와 변형의 과정을 상상하며 관람하기를 권한다. 쌘지길 전체의 '유료화'를 검토하게 만들었던(네티즌의 원성으로 백지화되었지만) <Wake Up Andy Warhol>전은 아트 습 매장과 통로 곳곳에서 영 아티스트들의 '앤디 워홀 모티브 작품'까지 섭렵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물론 이 모두가 결국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각을 권했던 앤디 워홀이 남긴 총명한 선물이다. ☺